

한중 미래 의미 표지법 대조 연구

- 미래문법형태 '-겠-'과 '要'를 중심으로

오윤지* · 김혜경**

목 차

1. 서 론
2. '要'와 '-겠-'의 유사성과 '미래' 개념
3. '要'와 '-겠-'의 한중 언어 체계에서의 지위
4. '要'와 '-겠-'의 문법화 경로
5. 결 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어의 '要'와 한국어의 '-겠-'을 대조 연구함으로써 미래문법형태¹⁾와 관련된 언어학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미래를 표현하는 언어적 범주는 범언어적으로 단일하게 설정되기 어려우며,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 경로 역시 단방향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본고는 '미래' 자체의 개념적 특성과 개별 언어의 유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1) 본고에서는 '要'와 '-겠-'이 각 언어 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다르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지시하는 용어로 '미래문법형태(future gram)'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문법형태'란 문법적인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s)를 말하며, 문법적인 형태소들은 실현 위치, 공기 제약, 또는 몇몇 특정한 문법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된 폐쇄 부류의 요소들이다(Bybee et al.(1994[2010]:26-27) 참조).

본 연구는 이러한 문법적 범주에 속하는 문법 형식을 통한 미래의미 표지법의 대조에 제한하여 작성된 논문임을 밝힌다.

형학적 특성, 시간 표시 체계가 미래문법표지의 문법적 범주 설정과 문법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키워드: ‘要’, ‘-겠-’, 미래문법형태, 시제 표시, 양태 표시, 문법화

1. 서론

화자는 언어를 통해 현실 세계 혹은 심리적으로 상정하는 세계를 표현한다.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은 언어적으로는 명제로 전달되며,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시간에 일어난다. 시간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이나 화자가 지정한 특정 시점과 전달되고 있는 상황 사이의 상대적 위치와 거리를 바탕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상황이 기준이 되는 시점보다 앞선 경우는 과거, 동일한 경우는 현재, 뒤에 위치하는 경우는 미래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그중 미래라는 개념과 그 표현 형태에 집중하고자 한다. 미래는 언어학적으로 여러 층위에서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 우선, 시제(tense) 체계의 각도에서 미래는 발화시 이후에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문법적 표시로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병기(2006:15)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시간상으로 현재 이후에 위치함을 나타내는 방법(문법 범주)을 말하므로 “발화자가 X(사태)의 실현을 Y(기준시)보다 Z(거리) 정도 뒤에 확인하는 시간적 위치”로 다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간적 위치로 정의되는 미래가 묘사하는 상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화자의 그 상황의 실현에 대한 짐작이나 판단을 기반으로 표현된다.²⁾ Palmer(2001:104-105)는 미래가 완전히 알려져 있

2) Lyons(1977:677)는 미래는 결코 순수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예측의 요소나 관련된 개념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Bybee et al.(1994:280)은 미래는 덜 시간적인 범주이며, 중요한 시간적 함축을 지닌 동작주 지향적(agent-oriented)이며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에 더 가까운 범주라고 하였다. 또한 엄죽균(2018:7)은 ‘미래’ 개념

지 않으며 미래의 사건 발생은 항상 합리적인 가정에 지나지 않기에 미래와 양태는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³⁾ 이처럼 미래 사건을 묘사하는 화자의 인식과 판단의 관점에서, 미래는 양태 표지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 혹은 양태 표지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의미로 정의된다.

시간적 위치와 화자의 인식과 판단으로서의 양태라는 특성을 모두 가지는 ‘미래’는 각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미래는 시제 체계 내에서 과거, 현재와 정연한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이루어 시제 표지로써 표현될 수 있으며, 의도 등을 나타내는 양태 표지에 기대어 맥락 의존적인 해석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형태의 범주는 범언어적으로 단일하게 설정되기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언어마다 미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에, 그 문법화 경로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문법화는 흔히 어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의미의 탈색과 주관화를 거쳐 전적으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로 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미래는 시간적 위치인 동시에 화자의 인식과 판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체적 의미’ 혹은 ‘주관화’라는 기준으로 시제와 양태 범주로 표현되는 미래 중 어떠한 형태가 더욱 문법화 되었는지 판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범언어적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의 문법화 경로도 일관적으로 설정되기 어렵다.

본고는 미래를 나타내는 언어 표지의 문법범주가 범언어적으로 일관되게 설정되지 않으며, 거쳐 온 문법화 경로 역시 언어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트랜스적 관점⁴⁾에서 한중

의 본질적 특징은 불확정성과 주관성이고, 상당수의 미래문법형태가 양태사(辭)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많은 경우 미래문법형태가 양태 의미를 동반한다는 점은 매우 필연적이라고 하였다.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양태(modality, 情態)라는 용어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설명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법적 범주를 뜻한다. (Lyons(1977:452), 박재연(2006) 참조.)

4) ‘트랜스’의 개념은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언어학의 방면에서 본고는 언어의 유형학적 보편성과 타당성 개별 언어의 경계를 넘어(越境) 통섭적으로 살

언어 대조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한중 언어에서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문법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성분인 ‘要’와 ‘-겠-’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⁵⁾ 이들의 의미적, 통사적 유사성, 각 언어 체계 내에서의 문법적 지위, 그리고 문법화 경로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라는 개념이 개별 언어의 문법 체계와 유형적 특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밝힌다. 또한 각 언어에서 서로 다른 기제로써 표현되고, 서로 다른 문법적 지위로 규정되는 미래 표지법에 일견 범언어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미래문법형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사적 요인을 살핌으로써 미래 표지법의 문법화 경로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문법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탐색을 하고자 한다.

2. ‘要’와 ‘-겠-’의 유사성과 ‘미래’ 개념

서론에서 다루었듯, ‘미래’라는 개념은 시간적 위치와 화자의 인식이라는 두 층위에서의 특성을 겸하며, 언어적으로는 시제 범주와 양태 범주에 걸쳐서

피는 연구 방법으로서 ‘트랜스’ 개념을 사용한다.

5)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형태는 ‘要’와 ‘-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형태로는 ‘-ㄴ 것’ 등이 있으며(고영근(2004)에서는 이를 ‘-(으)리라’와 함께 추측법으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도 ‘(으)려고 하’, ‘아/어/어야 하’와 같은 표현 역시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표현은 모두 우언적 구성(迂言的 構成, periphrastic construction)으로서, ‘단일 형식 대신 사용되는 보다 긴 다단어 표현’이다(도재학(2014) 참조). 본고는 ‘-겠-’ 역시 ‘-게 하’와 같은 우언적 형식으로부터 문법화되어 ‘-었-’과 계열관계를 이루는 시제 체계의 일부로 발전되었음을 고려하여, 그 문법화 정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어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형태로는 ‘要’ 외에 ‘會’ 또한 존재하는데, 엄죽균(2018:201)에 따르면 ‘要’ 미래가 ‘會’ 미래에 비해 좀 더 단순한 시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어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미래문법표지로 ‘要’를 선택하였다.

표현된다. 따라서 미래문법형태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2장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는 ‘要’와 ‘-겠-’이 공유하는 다수의 의미적, 통사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미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제로서, 또 양태로서의 미래는 이산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며 연속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또한 특정 미래문법형태가 나타내는 시제와 양태 의미 간에는 본질적인 핵심-주변 혹은 자족-의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우선 의미적 측면에서 ‘要’와 ‘-겠-’의 유사성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이들은 화자의 ‘의지’, ‘추측’, ‘판단’ 등, 강한 주관성을 드러낼 수 있다. 石毓智(2010[2011]:255)는 ‘要’가 매우 강한 주관적 추측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似乎’나 ‘彷彿’와 같은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要’의 의미적 특징은 ‘-겠-’에서도 나타난다. ‘-겠-’이 반영하는 양태는 단지 ‘추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판단’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 (1) a. 네가 나를 때렸겠다. 어디 두고 보자.
 b. 돈 잘 벌겠다. 자식들 공부 잘 하겠다. 네가 무슨 걱정이냐?
 이남순(1998:24)

예문 (1)에서 보듯, ‘-겠-’은 이미 실현된 객관적인 상황에 쓰여 화자의 판단이라는 주관적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이러한 ‘-겠-’의 기능이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면, 전체 문장은 미래 사건 발생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서술하는 문장이 된다. 박재연(2006:106-128)에서는 ‘-겠-’을 양태 어미로 분류하였는데, 특히 ‘-겠-’이 나타내는 양태 의미를 ‘개연성’을 판단하는 선어말 어미로 보았다. 이때의 개연성이란 화자가 정보의 확실성에 대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확실성과 가능성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다. 이렇듯 ‘-겠-’은 주관성을 바탕으로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화자의 ‘추측’, ‘의도’, ‘판단’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성은 모든 문장에서 일관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만일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공된다면

이러한 주관성은 저해될 수 있다. 이 점은 ‘要’와 ‘-겠-’의 두 번째 의미적 유사성과 관련된다. “要”와 ‘-겠-’이 구성하는 문장이 시제로서의 미래에 가까운 경우, 모두 미래 사건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거나 강한 확실성이 있다. ‘要’를 먼저 살펴보자면, 石毓智(2010[2011]:254)는 ‘要’가 종종 미래에 사건이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근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미래에 사건이 발생할 조건이나 징조가 있거나, 가상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추리나 추론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2) a. 萍兒, 花盆叫大風吹倒了, 你叫下人快把百葉窗關上。大概是暴雨就要來了。(《雷雨》)
 萍아, 화분이 큰 바람에 쓰러졌으니, 빨리 블라인드를 닫으라고 하인을 불러라. 아마 폭우가 쏟아질 것 같다.
 b. 也沒辦法了, 不鍛煉是要發胖的了。(《編輯部的故事》)
 어쩔 수 없다,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 것이다.
 石毓智(2010[2011]:254)

위의 예문들은 모두 ‘要’ 뒤의 사건이 발생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문(2a)에서는 ‘花盆叫大風吹倒了’가 ‘폭우가 쏟아지’는 사건이 발생할 근거가 되며, 예문(2b)에서는 ‘不鍛煉’으로 ‘發胖’이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인과 관계가 포착된다. 이렇듯 선행하는 구체적 근거로 인해 ‘要’ 뒤에 오는 사건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 된다.

‘-겠-’의 경우에도 미래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에는 그러한 사건이 실현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 (3) a.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b.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박재연(2006:124)

위 예문(3)은 모두 어떠한 사건이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듯 ‘要’와 ‘-겠-’이 서술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은

다른 언어적 요소나 맥락이 구체적인 근거로서 작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기타 언어적 요소와 맥락이 갖추어짐으로써 미실현 사건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실현이 보장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의 작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약화된다.

문숙영(2009:114-118)은 발화시와 상황시의 선후 관계를 표시하는 범주로서 시제를 정의한다면 시제는 어떠한 상황이 존재함을 표시해야 하므로, 어떠한 시간적 한정(quantific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경우 완전한 시간적 한정이 불가능하므로 특정한 상황이 미래 시점에 위치하리라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읽혀야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ㄹ’과 ‘-겠-’ 자체만으로 완전한 시간적 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두 문법 형태가 나타내는 시제로서의 미래는 기타 언어요소나 맥락이 뒷받침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논의에서 보듯, ‘ㄹ’과 ‘-겠-’이 나타내는 ‘인식’, ‘추측’, ‘판단’ 등의 양태와 시간적 한정을 통한 시제로서의 미래는 ‘ㄹ’과 ‘-겠-’ 자체의 기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체 문장의 맥락과 기타 문장성분에 따라 ‘ㄹ’과 ‘-겠-’이 포함된 문장은 구체적인 표현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ㄹ’과 ‘-겠-’의 기능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는 미래 개념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시제로서의 미래와 양태로서의 미래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분리되기 매우 어렵다. 만일 실현되지 않은 사태가 발화시 이후 특정 시점에 실제로 실현될 충분한 근거가 제공된다면 전체 문장은 객관적인 미래 사건에 대한 서술이 되며, 이러한 객관성이 증가할수록 확실한 미래시제 범주에 속하는 문장이 된다. 반면 객관적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면 실현되지 않은 사건은 단지 화자의 인식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화자의 인식이 강조되는 만큼 주관성이 강해진다. 이렇듯 주관성이 강해질수록 전체 문장은 양태 범주에 가까워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시제와 양태라는 두 범주가 이루는 연속선상에서 표현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정 문장의 연속선상에서의

위치가 미래문법형태 이외의 외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은 다음의 ‘要’와 ‘겠’의 통사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에서 드러난다.

우선 문장의 주어에 따라 ‘要’와 ‘-겠-’이 나타내는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미실현 사태를 서술하는 문장이 유정성(animate) 주어를 가지는 경우, 특히 문장의 주어가 화자라면, 전체 문장은 화자의 의도, 의지와 같은 양태적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4) a. 所以我要離開這兒哪。(《雷雨》)
 그래서 나는 이 곳을 떠날 것이다. 石毓智(2010[2011]:253)
- b. 我要去工作組告發, 我要去工作組告發, 叫他們派民兵來搜查!
 (《芙蓉鎮》)⁶⁾
 나는 작업반으로 가서 고발할 것이다, 그들에게 민병을 파견하여
 수사하라고 해라!
- c. 我要搭下班火車回丹佛, 你別惹任何麻煩。(《惡名》)
 나는 다음 기차를 타고 덴버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아무런 말썽
 도 부리지 말아라.
- d. 我要去跟這些小夥子談一會兒。(《塞萊斯廷預言》)
 나는 이 젊은이들과 잠시 이야기하러 갈 것이다.
- (5) a.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화와 결혼하겠다.
 b. 과분한 선물은 사양하겠습니다.
 박재연(2006:111)
- c. 제가 뭐 무슨 애국자나처럼 남들이 다 기피하는 군대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노라고 자원하던 그 전에 말입니다. (『오발탄』)

위 예문(4), (5)는 모두 1인칭 주어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문장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재연(2006:111)에서 ‘-겠-’의 행위양태 용법으로는 재귀적 조건 부과로서의 의도 용법이 있다고 하였다. 즉 화자 자신을 동작주로 하는 사태를 성립시키겠다는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듯 화자가 주어가 되는 경우, 문장에서 서술하는 사태는 화자의 행위에 의해 이

6) 코퍼스(<http://bcc.blcu.edu.cn/>)에서 추출한 예문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코퍼스에서 제공하는 문학 작품에서 예문을 추출한 경우, 작품명을 병기하였다.

루어지게 되므로 화자가 그 사태의 발생을 결정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화자가 미실현 사건의 발생을 강하게 긍정하면, 곧 그러한 사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겠다는 의미와 연결되므로 전체 문장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미실현 사건을 나타내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가 아니거나, 무정성 (inanimate) 주어인 경우를 살펴보자.

- (6) a. 老陳吶, 聽說咱們北京要地震, 有這麼回事嗎? (《編輯部的故事》)
 친 선생님, 우리 북경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나요?
- b. 我告訴您, 這個行市要大漲特漲。 (《日出》)
 제가 당신께 알려드립니다, 이 시세는 폭등할 것입니다.
 石毓智(2010[2011]:250)
- c. 鍋裏的水快要溢出來了, 她蓋上鍋蓋。 (《豐乳肥臀》)
 냄비 안의 물이 곧 넘치려고 해서, 그녀는 냄비 뚜껑을 닫았다.
- (7) a. 내일은 비가 오겠네.
- b. 한 시간 전에 이십이만 원 했는데 또 올랐겠어요?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 c. 끝내 혼자서 했다고 우기는데, 그러나 증인이 있으니 이제 차츰 사실대로 자백하겠지만. (『오발탄』)

예문(6)의 ‘北京’, ‘這個行市’, ‘鍋裏的水’, (7a)의 ‘비’는 무정성이며 (7b)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며, (7c)는 주어가 화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石毓智(2010[2011]:250)는 예측을 나타내는 ‘要’의 주어는 사람이 아닌 명사, 특히 무생명의 사물이며, 이러한 주어는 ‘의도’ 의미를 제거한다고 하였다. 또한 王統尚(2009)은 예측 의미의 단순 미래를 나타낼 경우, ‘要’의 주어는 사람이 아닌 명사이고, 특히 무생명의 사물이라고 하였다. 혹은 주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지역 명사나 시간 명사의 존현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위 예문에서 보듯,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도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이들 문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건에 대한 서술, 즉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

문(6b)의 ‘這個行市要大漲特漲’은 ‘我告訴您’을 통해 화자의 예측을 청자에게 전달한다는 맥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발화시 이후에 발생할 미래 사건 서술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실현되지 않은 사건을 예측한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예문(6a)에서는 증거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聽說’가 미래 사건 발생이 의부적 증거로써 뒷받침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문(6a)은 특정인의 미실현 사건에 대한 예측을 서술하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객관 서술에 가까워진다.

문장의 주어가 무정물, 특히 지역이나 시간인 경우 화자의 예측이나 객관적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무정물 주어론 논항으로 하는 동사의 특성 과도 관련된다. 王統尙(2009)는 ‘要’가 예측 의미의 단순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비자주동사와 사용된다고 하였다.⁷⁾ 위 예문(6)의 ‘地震’, ‘大漲特漲’, ‘溢出來’, (7)의 ‘(비가) 오다’, ‘(가격이) 오르다’는 모두 비자주적인 술어로, 술어에 대한 주어의 의지가 표현될 수 없으므로 문장은 화자의 예측이나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

문맥에 따라 술어가 나타내는 사태의 객관성의 정도가 변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일 비가 오겠네’는 화자의 추측일 수 있으나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와 같이 구체적 근거가 추가된 문장은 객관적인 미래로 이해되기 쉽다.

이처럼 주어지는 문맥에 따라 동일한 술어는 예측이나 객관적인 시제로서의 미래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미실현 사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을수록 객관적인 미래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문맥이나 명확한 증거 제시 이외의 방식으로

7) 염죽균(2018:93)은 비자주 동사의 [+자주] 의미로 인해 능원동사가 [-주관]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래 의미의 ‘要’가 항상 비자주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염죽균(2018:100)은 ‘要’를 주어 유형별, 술어성분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긍정성 명사성 주어인 경우와 부정성 명사성 주어인 경우 모두 비자주 술어성분과 자주 술어성분과 공기할 수 있었다. 다만 사용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긍정성 명사성 주어인 경우 술어의 성분에 따라 사용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부정성 명사성 주어인 경우에는 비자주 술어성분이 사용되는 경우가 확연하게 많았다. 이를 통해 ‘要’ 미래 의미의 문장에서는 주어의 특징이 술어보다 영향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도 미실현 사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와의 밀접성인데, 미실현 사건은 현재에 가깝거나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王力(1984:82)는 ‘要’가 가까운 미래를 지시한다고 하였으며, 石毓智(2010[2011]:258)는 ‘要’가 나타내는 시간은 현재를 포함하여 중기(中期) 미래까지의 모호한 경계라고 하였다.

현재와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미실현 사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용법은 ‘임박태’, ‘기동상’으로서 분석되기도 한다. 박재연(2006:124)은 ‘-겠-’의 기능에 기동상을 포함시켰다. 이은수(2022)에서도 ‘要’를 내포하는 절이 단순히 참조시 이후의 미래 상황만 나타내지 않으며, ‘참조시’의 상황(‘의지’와 ‘발생이 임박한 상태’)도 나타낸다고 하였다.⁸⁾

- (8) a. 剛要向陳白露探身。 (《日出》)
 陳白露에게 막 몸을 내밀려 한다.
 b. 伸著頭頸, 笑著要吻她的手。 (《日出》)
 목을 내밀며, 웃으면서 그녀의 손에 입맞춤하려고 한다.
 石毓智(2010[2011]:255)
- (9) a. 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어제 왜 그랬는지 알겠니? - 알겠습니다.
 b. 별 사람 다 보겠네.
 c. 처음 뵈겠습니다.
 박재연(2006:124)

예문 (8)의 ‘探身’, ‘吻她的手’ 모두 현재와 매우 가까이 위치하여 곧 실현될 미실현 사건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에 대한 예측이나 판단 의미가 배제되어 있다. 박재연(2006)에서는 예문 (9)와 같은 예문을 기동상의 예로 제시하였는데, 현재와의 인접성을 넘어 사실상 실현된 사태 역시 서술할 수 있다는 한국

8) 이은수(2022:48-49)는 ‘要’가 단순하게 ‘참조시 이후’의 미래의 상황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며, ‘참조시’의 상황도 동시에 나타낸다고 보았다. ‘참조시’의 상황은 ‘상황의 발생이 임박한 상태’, ‘어떤 상황이 발생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상태’이고, ‘참조시 이후’에는 해당 상황이 곧 발생할 것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참조시’의 상황과 ‘참조시 이후’의 상황은 시간적으로 가깝다.

어에서의 관찰은 ‘要’는 이미 시작된 동작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石毓智(2010[2011]:255)의 중국어에 대한 관찰과도 합치된다.⁹⁾

이처럼 ‘要’와 ‘-겠-’은 의미적, 통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이는 미래라는 개념 자체의 특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발화시에는 그러한 사건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 단언(assertion)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미래 사건은 화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의도와 예측 등의 양태를 나타내는 표지와 미래시제 표지가 동일한 문법적 형태를 공유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법적 형태의 실제 사용에도 그만큼 문맥이나 기타 요소의 영향이 커지게 되며, 이는 범언어적으로 유사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3. ‘要’와 ‘-겠-’의 한중 언어 체계에서의 지위

2장에서 ‘要’와 ‘-겠-’의 의미적, 통사적 유사성을 미래 개념의 특성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시제로서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화자의 인식과 판단을 전제로 표현되므로, 미래라는 개념은 언어에서 시제와 양태의 연속선상에서 기타 문장 성분들에 의해 명료화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要’와 ‘-겠-’과 같은 미래문법형태는 개별 언어에서 그 문법적 지위와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 3장에서는 시제와 양태라는 두 범주의 연속선상에서 표현되는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형태 ‘要’와 ‘-겠-’의 각 언어에서의 범주적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본다.

‘要’와 ‘-겠-’이 각 언어 체계 내에서 어떠한 문법적 지위를 가지는가에 대

9) 石毓智(2010[2011]:255)는 이러한 ‘要’의 특징은 다른 어떤 미래시 표지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就’에 대해서는 당장의 미래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선행 사건과 중첩될 수 없으므로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동작을 나타낼 수 없다고 보았다.

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이들은 의미적, 통사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자 언어에서 분류되는 문법범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要’부터 살펴보자면, ‘要’는 기본적으로 양태를 나타내는 능원동사로 분류된다. 呂叔湘(1980[1994]:520-521)은 ‘要’가 어떠한 일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반드시 ~해야 한다(須要)’, ‘마땅히 ~해야 한다(應該)’의 의미가 있고, ‘가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⁰⁾

- (10) [의지] a. 他要學游泳。
그는 수영을 배우려고 한다.
b. 我有話要對他講。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있다.
- (11) [당위] a. 借東西要還。
빌린 물건은 돌려주어야 한다.
b. 我要不要留下來?
제가 남아야 할까요?
- (12) [가능] a. 看樣子要下雨。
보아하니 비가 올 것 같다.
b. 會議大概要到月底才能結束。
회의는 대략 월 말에 되어야 끝날 수 있을 것이다.

呂叔湘(1980[1994]:520-521)

위 예문은 모두 ‘要’가 ‘의지’, ‘당위’, ‘가능’과 같은 양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문맥에 따라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 예문(10)에서 ‘他’나 ‘我’가 실행하고자 하는 사건이 미래 사건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총칭문 (11a)와 달리, (11b)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실현되지 않은 사태와 미래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문(12)의 ‘看樣子’, ‘大概’와 같은 언어적 요소를 통해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나 판단의

10) 능원동사 ‘要’가 나타내는 양태 의미는 다양한데, 彭利貞(2005), 郭昭軍·尹美子(2008), 염죽균(2018:19)에서는 조동사 ‘要’는 동적양태(dynamic modality), 당위양태(deontic modality),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주체가 표현되며, 이러한 문장에서의 미실현 사건은 미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要’ 자체가 미래시제 표지로 분석되기보다는 양태 표지에 속하며, 문맥에 따라 미래 지시 기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원인을 살펴보자. 우선 중국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기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은수(2003:1)는 일반적으로 중국어에는 시제(tense)를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으며, 중국어에 반영된 시간 구조에는 ‘상(aspect)’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¹¹⁾ Comrie(1976[1998]:195)에서도 중국어는 대다수가 동사 접미사를 지닌 상을 갖거나 혹은 상적 가치와 시간적 가치의 결합을 갖는다고 하였다. Li&Thompson(1989[2015]:194-241)을 참고하면, 현대중국어에서 상표지로 설정된 문법적 요소는 완료상(perfective) 표지인 ‘了’, 지속상(durative) 표지 ‘着’와 ‘在’, 경험상(experiential) 표지 ‘過’ 등이 있다. 이러한 상표지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다.¹²⁾

이처럼 중국어는 상을 나타내는 문법 표지를 통해 사건이나 상태의 내부적인 시간 구성을 표현하고, 기타 어휘적인 방식(부사의 첨가 등)을 활용하여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표시한다. 이러한 기제를 가지는 언어에서 ‘要’의 문법적 지위를 미래시제 표지로 설정하는 것은 중국어가 반영하는 시간 구조 전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예외적이고 비정합적인 처리 방식이다. 따라서 ‘要’만을 중국어의 미래시제 표지로 설정하는

11) 이명정(2011:41)에 따르면, 중국어는 ‘了’, ‘過’, ‘在’와 같은 상 표지, ‘會’, ‘要’와 같은 조동사, 그리고 ‘已經’, ‘曾經’과 같은 부사 등이 모두 일정한 시제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용법상의 강제성이나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중국어에는 광의의 시제 범주가 갖추어져 있지만 협의의 시제 범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였다.

12) 예를 들어, 완료상 표지인 了는 과거만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며,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절에 사용될 수 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1) 明天我就開除了他。

내일 나는 그를 제명할 거야.

(2) 我吃完了你吃。

내가 다 먹고 나서 네가 먹어.

Li&Thompson(1989[2015]:207, 219)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과거시제나 현재시제와 계열관계를 구성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 ‘要’가 나타내는 미래 의미는 ‘要’ 자체의 기능과 더불어 기타 문장 성분이나 전체 문맥에 의지하여 표현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要’는 미래시제 표지로서 그 문법적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 (13) a. 我沒有墓地。 - 沒有墓地, 你到哪裏去?
 저는 못자리가 없습니다. - 못자리가 없으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b. 你給我爸爸打電話, 他知道我們明天在哪裏。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거세요. 아빠는 우리가 내일 어디에 있을지
 알아요.
 - 好的, 我給他打電話。
 그래, 내가 그에게 전화할게. (《第七天》)

예문 (13)에서 표현되는 미래 의미는 모두 무표적으로 실현되어있다. 이처럼 미래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적인 형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에 따라, 특정한 문법형태를 미래문법형태로 규정하고, 과거, 현재와의 계열관계로서 시상 체계를 분석하는 것은 중국어의 유형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적합하지 않은 처리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要’를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적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어의 문법 체계와 매우 정합적인 것으로 보인다.¹³⁾ 예문(10)-(12)에서처럼 ‘要’는 ‘의지’, ‘가능’, ‘당위’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要’는 양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형태적, 기능적으로 더욱 정합적이다. ‘要’를 양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미래의미의 실현을 부가적 기능으로 보는 관점이 중국어의 유형적 특성에 더욱 적합한 설명이 될 수 있다.

한국어의 ‘-겠-’은 양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흔히 분류되는 ‘要’와 통사

13) ‘要’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다른 능원동사들 중 일부 또한 미래시를 나타낼 수 있다. 王力(1984:105-106)은 ‘能, 可, 必, 該, 要, 欲, 肯, 敢’ 등의 능원식(optative form)이 미래시를 나타내는 것은 미래가 주관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要’와 ‘會’만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원식도 대부분 미래시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들은 ‘要’와 ‘會’처럼 단순히 미래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 뿐이라고 보았다.

상의 특성을 공유하지만, ‘要’와 달리 미래시제 표지로서 그 지위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다. 한국어의 ‘-었-’은 과거시제 표지로서의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며, 이와 대립을 이루는 비과거 현재시제 표지 ‘-는-’, ‘-ㄴ-’, ‘∅’ 역시 시제 표지로 인정받고 있다. 미래를 나타내는 ‘-겠-’을 시제 범주로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으나, 고영근(2009)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전체적인 시제 체계와 ‘-겠-’의 분포를 고려하여 ‘-겠-’을 비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미래시제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과거시제 표지 ‘-었-’, ‘-는-’과 이루는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 그리고 시제 표지가 없는 경우와 이루는 통합관계(syntagmatic relation)를 들 수 있다.¹⁴⁾

- (14) a. 나는 지금 학교까지 걷는다 (-는- : 現在時標記)
 b. 나는 어제 학교까지 걸었다 (-었- : 過去時標記)
 c. 나는 내일 학교까지 걸겠다 (-겠- : 將來時標記)
 고영근(2004:255-256)
- (15) a. 아기가 과자를 먹겠다
 b. 아기가 과자를 먹다
 고영근(2004:132-133)

위 예문 (14)에서 보듯, 한국어의 시간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계열관계를 이루는 시제 표지들로 표현된다. 또한 예문 (15)를 통해 ‘-겠-’이 시제 표지가 없는 문장과 통합관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제 체계가 존재하는 한국어에서 ‘-겠-’이 쉽게 미래시제 표지로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실제적인 ‘-겠-’의 사용 양상을 보면 대체로 의도나 추측을 나타낸다는 점 역시 인정해야 한다. 위 예문(14)는 ‘-겠-’이 과거시제 표지 ‘-었-’, 현재시제 표지 ‘-는-’과 계열관계를 이룸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영근(2004)에서도 언급하였듯, 위 예문들에서 ‘-겠-’의 기능을 살펴보면, ‘아기가 과자를 먹겠다’는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

14) 한국어 형태소 분석의 기준과 관련해서 계열관계와 통합관계는 고영근(1981) 참조, 굴절접사를 중심으로 한 원리는 고영근(1978) 참조.

는 내일 학교까지 걸겠다'는 화자인 '나'의 의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계열관계에서 '-겠-'이 차지하는 미래시제 표지로서의 지위는 실례에 대한 분석에서 다시 의혹의 대상이 된다. 문숙영(2009)에서는 '-겠-'을 시제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며, 미래는 더 지배적인 양태 의미에 기대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았다.¹⁵⁾ 이처럼 시제 체계의 일부로서 정의되는 '-겠-'과 실제적인 기능과 사용 목적의 관점에서 본 '-겠-'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처럼 '要'와 '-겠-'의 문법적 지위는 개별 언어의 유형학적 특성,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방식, 이들을 시제 표지와 양태 표지 중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언어 전체의 체계에 더 정합적일 수 있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상표지로 시간 개념을 주로 나타내며, 다수의 상표지 혹은 시간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가 동사 뒤나 문장 말미에 등장하는 중국어에서는 '要'를 시제 체계나 계열관계로써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要'는 출현 위치 및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법 표지인 능원동사 범주에 속해야 한다. 따라서 '要'는 양태 의미에 기대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중국어의 시상 체계 전체를 고려하였을 때에 더욱 정합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

반면 과거, 비과거 시제 체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은 한국어에서 '-겠-'은 직설 설명법에서 과거, 현재 표지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성분으로 분석될 수 있다. '-겠-'의 미래시제로서의 문법적 지위는 더욱 명확해 보인다. 다만, 실제로는 '추측', '의도'와 같은 양태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 따라 '-겠-'의 성격을 정의하는 데에 많은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要'와 '-겠-'의 문법적 지위는 각 언어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이는 '要'와 '-겠-'이라는 하나의 형식이 문맥과 기타 성분에 의해 분리

15) 문숙영(2009:114)에서는 한국어의 시제 체계를 과거와 비과거가 대립되는 이분 체계로 보았으며 (과거 : 었/었느/었다, 었었. 비과거 : 느/∅), '겠'을 미래시제 범주로 보지 않았다.

된 두 범주인 시제와 양태를 모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법적 표현의 범주를 양자 중 하나로 귀결 짓는 것은 이들이 속한 언어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분류로도 볼 수 있다.

범언어적인 특성인 시제와 양태라는 두 범주의 불가분성을 인정하더라도, 개별 언어에서 두 범주 중 더 우세한 기능을 정의하거나, 어떠한 용례가 더욱 문맥 의존적인지 등을 가늠하고자 하는 시도는 존재한다. 즉, 양태와 미래시제의 핵심-주변, 혹은 자족-의존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앞서 보인 것과 같이, 개별 언어의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작적(操作) 규정의 영향이 양태와 미래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4. ‘要’와 ‘-겠-’의 문법화 경로

문법화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어에서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보통 범언어적으로 일관성을 띠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양태와 미래 표지의 문법화는 단방향으로 그 경로가 파악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¹⁶⁾

미래시제 표지와 양태 표지의 문법화 경로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살펴보자. 우선 미래시제 표지가 양태 표지로 발전하였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白解紅·石毓智(2008)는 미래 표지로부터 인식 양태의 기능이 파생되어 양태 표지로 문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는 현실 정보에 근거하여 미래의 사건

16) Bybee et al.(1994[2010]:27-28)은 양태 의미가 미래 형태소와 관련되는 핵심 원인은 불확실성이 아닌, 오히려 미래 문법형태들이 발달해 나온 특정한 어휘적 근원과, 그들이 사용된 문맥에서의 유용한 추론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앞서 2장, 3장에서 미래문법형태와 문맥 및 기타 문장성분과의 관계를 다루었던 것에 이어, 4장에서는 미래문법형태들이 발달해 나온 근원, 그리고 문법화의 과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발생 가능성을 해석하는 것으로, 발생할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추정일 경우 인식 양태적 기능을 가지게 되고, 이로부터 양태 표지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양태 표지가 미래시제 표지로 발전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Bybee et al.(1994[2010]:293, 386)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제 표지가 전혀 없을 때, 인식 양태의 의미와 관련된 가능성과 개연성의 표지는 미래 시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화자에 의한 의도의 표현과 예측의 제공이 모두 명백하게 진술되지 않았다면, 언급된 것으로부터 추론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론으로 인해 미래 문법형태의 의미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Van der Auwera & Plungian(1998)에서는 양태의 의미도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 미래(Future)가 前양태, 後양태 성분 모두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미래시제와 양태의 문법화 경로에 대한 엇갈린 주장은 ‘要’와 ‘-겠-’의 발전 과정에서 명확히 관찰된다. 중국어의 ‘要’는 동적양태(의도)와 당위 양태로부터 인식양태(복합예측, 가능, 추론)를 거쳐, 단순 예측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여겨진다(박성하(2015), 엄죽균(2018)). 반면, 한국어의 ‘-겠-’은 사동 구조로부터 비롯되어 미래시제 표지로 정착된 이후 의도와 추측 의미를 획득했다고 여겨진다(임동훈(2001), 박재연(2006), 고영근(2004) 등).¹⁷⁾ 즉, 미래시제 표지와 양태 표지의 발전 양상이 두 언어에서 상호 역행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법화의 과정이 단방향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시제로서의 미래와 양태의 필연적인 개념적 연관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태와 미래 시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문법화 정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주관화, 어휘적, 문법적 의미의 표현 정도 등으로는 문법화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

17)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서의 ‘-겠-’을 양태 표지로 보고, 그 미래시제 표지로서의 용법은 문법화 이전 형식으로 분류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임동훈(2001), 고광모(2002)는 ‘-겠-’이 예정, 혹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문법화 이전 형식인 ‘-게 하겠-’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즉, ‘-게 하겠-’이 ‘-게 되어 있-’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혹은 ‘예정’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우 어렵다. 미래와 양태 중 어떠한 성분이 더욱 문법소에 가까우며, 더욱 주관화가 된 것인가가 판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위치로서의 미래 의미에 가까운 형태와 화자의 미실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형태 모두 문법화에서 이전과 이후 단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의 동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본고는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가 특정 성분 자체의 의미 허화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전체의 유형학적 특성과 시상, 양태 표현 방식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어서 ‘要’와 ‘-겠-’의 문법화 경로를 통해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 양상을 살펴보겠다.

중국어의 미래문법형태 문법화는 중국어의 유형학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굴절, 교착 성분이 적어 고립어로 분류되는 중국어는 상당 부분 어순의 도움을 받아 시간적 선후관계를 구현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사건 배열과 시간 표현에 있어 ‘시간순서원칙(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이로 인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시하는 요소는 모두 문장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나타난다. 이렇게 서로 다른 통사적 위치에 출현하는 성분들은 서로 다른 문법화 경로에 의해 발전해왔음에 따라 현대중국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통사적 지위를 가져, 서로 다른 문법 범주로 분류된다.

그 예로, 미래 시간을 지시할 수 있는 문법형태는 동사에 선행하는 능원동사로부터 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시간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在’, 그리고 이와 공기하는 어기조사 ‘呢’가 표현하는 진행상에 기대어 표현되거나, 부착이라는 원형 의미에서 문법화되어 지속을 나타내는 ‘著’를 동사 뒤에 부가하여 표현할 수 있다. 과거 시간은 완료를 원형 의미로 하는 ‘了’, 어떤 것을 지난다는 이동 의미를 나타내는 ‘過’가 문법화를 거쳐 나타내는 ‘완료’와 ‘경험’ 의미에 기대어 표현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동사 뒤에 부가된다. 또한 ‘현재와 관련된 상태’, 즉 특정 사태의 실현을 나타낼 수 있는 어기조사 ‘了’ 역시 문말에 출현한다.

이처럼 중국어에서 후시성을 표현하는 성분은 동사의 앞쪽에, 그리고 전시성을 표현하는 성분은 동사의 뒤쪽에 위치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중국어의 시간순서원칙 준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해 본다면, 미래를 지시하는 문법형태가 동사 앞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능원동사에서 비롯되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이렇듯 동사 앞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성분이 미래 시간을 지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예는 ‘要’ 이외에도 관찰된다. 조동사 ‘要’의 출현 이전인 선진시대부터 兩漢 魏晉南北朝에 이르기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조동사 ‘欲’이 그것이다.¹⁸⁾ ‘欲’은 본래 물을 받아먹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회의자로 ‘욕심’이나 ‘의욕’을 뜻한다. 이러한 구체적 어휘 의미는 이후 ‘~하고자 하다’나 ‘바라다’와 같은 양태 의미로 파생되어 조동사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의도’와 ‘소원(意願)’의 의미는 흔히 미실현 사태의 실현과 관련되므로 ‘장차 ~하려 하다’와 같은 용법에까지 연결되어,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에까지 이어졌다.

‘要’ 역시 ‘欲’과 매우 비슷한 문법화 과정을 거쳤다. 盧卓群(1997:45)에 따르면, ‘要’는 본래 사람의 허리를 말하는데, 허리에 물건을 묶어서 ‘가운데에서 가로막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추구하길 바라는 행해지는 것이므로, ‘추구하여 얻다(求取, 求得)’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바람(希望, 想)’이라는 의미로 이어졌다.¹⁹⁾ ‘要’가 조동사로 쓰인 것은 漢代에 처음 발견되는데, 초기에는 경쟁관계에 놓인 ‘欲’으로 인해 세력이 약하였으나, 이후 조동사 사이의 경쟁을 거쳐 조동사 ‘要’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唐代에는 ‘의지식’ 조동사로 확립되었다. 이후 宋代에 이르러 조동사 ‘要’의 미래시 용법이 나타났다.²⁰⁾

18) 盧卓群(1997:47) 참조.

19) 이렇듯 ‘허리’라는 명사를 원형으로 하는 ‘要’가 획득한 새로운 의미는 《廣韻》에서의 ‘要’에 대한 풀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廣韻》에 따르면 ‘要’는 平聲과 去聲으로 읽을 수 있는데, 平聲일 때는 ‘요구하다(要求)’의 의미이고, 去聲일 때는 ‘요점(要點)’ 혹은 ‘반드시(必定)’의 의미라고 하였다(太田辰夫 1987[2003]:188-189).

- (16) 要之褪之， 好人服之。(《魏風·葛屬》)
 (치마의) 허리를 대고 동정을 달면, 좋은 임 입으셨네.
- (17) a. 皆得其欲， 以從其事， 而要其成。(《左傳·襄公三十年》)
 모든 사람이 욕구를 충족하고자, 직무에 종사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니
 b.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孟子·公孫醜上》)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
- (18) 黃泉下兮幽深， 人生要死， 何爲苦心。(《漢書·廣陵厲王香傳》)
 황천 아래는 아득히 깊숙하고, 사람은 죽기 마련이니, 고심할
 것이 무엇인가.
- (19) 若要添風月， 應除數百竿。(《唐·韓愈·竹徑》)
 청풍명월을 더하고자 한다면, 수백의 대나무를 덜어야 한다네.
- (20) a. 宮中要唱洞蕭詞。(《宋·徐柱·柳枝詞》)
 궁중에는 洞蕭詞를 불러야 한다.
 b. 今來消折了本錢， 無可營用， 要去延安府投奔親眷。(《水滸傳·第
 二回》)
 지금까지 밑천을 다 썼으니, 쓸 것이 없어 延安府로 가서 친지에
 의탁해야 한다.

盧卓群(1997:45-47)

위 예문들은 ‘要’의 문법화 과정을 시대순으로 보이고 있다. 예문 (16)에서 보듯 《時經》 시대부터 ‘要’는 ‘치마의 허리를 달다, 허리를 꿰매다’라는 동사로 활용되었다.²¹⁾ 예문 (17)에서의 ‘要’는 ‘구하다’, ‘추구하여 얻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문 (18)에서는 ‘要’가 조동사로 활용되는데, ‘응당 어떠한 것이다(必定, 應當)’라는 의미이다. 예문 (19)의 ‘要’는 ‘바람’의 의미가 있으며, 예문 (20)에서는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식 조동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구하다’라는 의미가 차츰 ‘바람’, ‘의지’ 용법으로 발전하였

20) 石毓智(2010[2011]:249)에 따르면 ‘欲’은 宋元 이후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要’의 미래시 용법은 宋代에 나타났다.

21) 高亨은 이에 대해 “要， 讀爲腰。 用爲動詞， 卽縫裙子的腰。(‘要’는 ‘腰’라 읽으며, 동사로 쓰이는데, 즉 치마의 허리를 꿰매는 것이다)”라고 주석하였다.

음이 관찰된다. 이때, ‘바람’과 ‘의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미실현 사건임에 따라, 미래의미를 가지게 됨을 볼 수 있다.

위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양태적 내용과 관련된 동사가 쉽게 미실현 사건과 연결되며, 이러한 형태가 동사 앞에 부가됨으로써 미래시를 나타내는 기능에까지 확장됨이 확인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중국어에서의 미래문법 형태는 시간순서원칙을 비교적 엄격히 지키는 중국어의 유형학적 특성과 관련되어 발전해 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어서 한국어의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를 살펴보자.

한국어 ‘-겠-’의 미래시제 표지로의 발전, 그리고 양태 표지로서의 용례 확대는 모두 기타 언어 성분의 발전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겠-’의 전신이었던 사동 형식 ‘-게 하얏-’은 예정상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추측 의미 역시 가지고 있었다.²²⁾ 이러한 ‘-게 하얏-’은 한국어의 상 체계가 시제 체계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끌었던 완료상 ‘-어 있다’의 과거시제 ‘-었-’으로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계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 있다’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게 하얏-’은 ‘-게얏다’는 형태로 축약되었으며, 이후 ‘-겠-’으로 발전하여 ‘-었-’과 계열 관계를 이루는 현대의 시제 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²³⁾

- (21) 내 아히 장춧 죽게 하얏시니
 (동국신속삼각행실도 효자도 2, 84장 뒤) (고광모 2002:29)
- (22) a. 나가서 다스리게 하얏습니
 (인어대방 1, 30장 뒤) (최동주 2002나 519)

22) 나진석(1953[1971]:296-306)은 사동구문에 기댄 구문 ‘-게 하얏다’이 추측의 미래시제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23) 교영근(2009:418-434)에 따르면, 중세국어에서는 보조동사와 연결어미를 통해 동작상 범주를 구성되었는데, 완료상의 ‘-어 있다’가 과거시제로 전환하며 ‘-었-’이 생성되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어 예정상의 ‘-게 하다’는 ‘-게 하얏다’를 거쳐, ‘-게얏다’는 형태로 축약되었다. 이러한 사동구문에 기댄 형태는 미래시제로 해석되게 되었으며, 이후 ‘-겠-’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이러한 ‘-었-’과 ‘-겠-’의 계열관계의 확립을 통해 한국어의 시간 개념 표시는 서법 중심의 중세 국어 시상법으로부터 서법과 시제 중심 체계가 되었다고 보았다.

b. 나가서 다스리겠습니다

(정정언어대방 2, 11장 앞) (최동주 2002나 519)

고영근(2004:419, 425)에서 재인용

예문(21a)는 17세기 전반의 자료로, 여기에서의 ‘게 흐여시니’는 내 아이가 장차 죽을 수 있다는 미래 사건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게 흐’의 형태적 변화와 기능전환은 (22a,b)와 같이 나타나는데, 우선 ‘추측’ 밖의 ‘의지’ 의미도 가지게 되어 현대의 ‘-겠-’의 기능에 상당히 근접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형태적 변화 역시 드러나는데, (22a)는 18세기 후반, (22b)는 19세기 후반의 자료로, 우연적 구성 ‘-게 흐았다’가 ‘-겠다’와 같이 전환되었음이 관찰된다. ‘-겠-’의 양태 표지 기능으로의 확장 또한 기타 언어 성분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중세국어에는 선어말어미 ‘-니-’와 ‘-리-’가 대립 관계를 유지하며 각각 현실법과 비현실법 표지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법 체계는 15세기 말부터 시작된 ‘-었-’의 발달로 ‘-니-’가 퇴화되며 쇠퇴하였다. ‘-니-’의 퇴화는 그와 대립하던 ‘-리-’에도 영향을 미쳐 ‘-리-’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미정의 뜻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현실법 표지의 쇠퇴는 ‘-겠-’의 기능이 확장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²⁴⁾

(23) a. 夫人하 나를 브러 太子를 언과더 흐시면 命을 거스습디 아니호리
이다 (月釋22:61b)

b. 내 아드릭 죽거나 살어나 一定흔 귀 벼를 아라오려다 흐더시다
(月釋22:62a-b)

(24) a. 어머니 마음 저러흐면 너 몸 하나 슬허져서 출하리 불효는 되려
니와 마음은 곳치지 못흐깃쇼 (남원 5:10b)

이병기(2018:93-94)

b. ... 군함을 가지고 청국으로 밋서 건너 갓겻습네다 (협성회
1898/2/12 너보)

24) ‘-니-’와 ‘-리-’의 대립관계 쇠퇴와 ‘-겠-’의 기능 확장은 허웅(1982a, 1982b) 참조. 한편, ‘-겠-’의 이전 형태인 ‘-게 흐엿-’이 16세기부터 추정의 뜻으로 쓰여, 이 구문과의 기능 충돌이 ‘-리-’의 쇠퇴를 촉진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이기갑 1987).

정혜선(2013:133)

예문 (23)은 중세국어의 ‘-리-’의 용법을 보여준다. (23a)는 기러기가 부인의 명을 따르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23b)는 아들이 죽거나 사는 소식을 알게 될 것임을 ‘추측’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모두 ‘-겠-’의 용법과 일치하며, ‘의도’와 ‘추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미실현 사건으로서 미래의미와 연결된다. 이러한 ‘-리-’의 쇠퇴와 이를 대체하는 ‘-겠-’의 확장은 예문(24)에서 관찰된다. 예문(24)에 나타나는 의도와 추측의 의미는 ‘깃’과 ‘겻’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리-’로 치환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19세기에 새로 형성된 종결어미가 ‘-리-’와는 결합할 수 없으나 ‘-겠-’과는 결합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겠-’의 기능이 확장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겠-’이 거처온 문법화 과정에서, 해당 문법형태는 시간으로서의 미래와 판단으로서의 미래 두 의미와 기능을 유지한 채로 변화된 언어의 전체적 체계 내에서 거듭 새로이 그 범주가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의 ‘-겠-’은 ‘-었-’과 계열관계를 이루는 미래시제 표지와 화자의 의지와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지 간의 중간적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되어, 여전히 그 문법적 범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ㅁ’와 ‘-겠-’의 문법화 경로에서 발견되는 상호 역행성은 각 성분이 속한 언어의 유형학적 특성과 통시적 체계 변화에 따라 발생한 것임이 드러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의 ‘ㅁ’와 한국어의 ‘-겠-’을 대조 연구함으로써 미래문법 형태와 관련된 언어학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미래를 표현하는 언어

적 범주는 범언어적으로 단일하게 설정되기 어려우며,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 경로 역시 단방향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이는 미래 자체의 개념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미래는 시간적 위치로서, 또한 화자의 미실현 사태에 대한 판단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언어적 표현 역시 시제와 양태라는 두 문법적 범주의 연속선상에서 표현된다.

이러한 두 범주에 걸친 연속적 개념을 개별 문장에서 하나의 문법형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문법형태는 자연히 문맥이나 기타 문장 성분에 의해 그 의미가 구체화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며, 의미의 구체화 방식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개념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한중 언어의 미래문법형태는 그러나 각 언어에서 서로 다른 문법적 범주에 속해있다. 본고는 이러한 분류가 해당 언어의 전체적인 체계와 시간 개념 표지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리임을 보였다. 이렇듯 특정 언어의 미래문법형태에 부여된 범주적 정의는 해당 언어 체계에 영향을 받아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범주적 정의가 양태와 미래시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핵심-주변 관계를 이루고 있거나 자족-의존 관계를 이루고 있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함을 시사한다.

‘미래’ 개념의 시제와 양태라는 두 층위에서의 특성은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 과정에도 관련된다. 시제와 양태라는 두 범주에 걸쳐 미래가 표현되나, 양자 간의 문법화 경로는 단방향적으로 설정되기 어렵다. 본고는 ‘要’와 ‘-겠-’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는 해당 언어의 유형학적 특성과 시간을 나타내는 기타 문법형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要’의 문법화는 시간순서원칙을 준수하는 중국어의 고립어로서의 특징과 관련되며, ‘-겠-’의 문법화는 시제 표지로 발전한 ‘-었-’과의 계열관계 형성, 비현실 서법 표지 ‘-리-’의 쇠퇴 양자에 모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에서는 단방향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일관성보다는 언어적, 개념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정합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다.

參考文獻

- 고광모, 「'-겠-'의 형성 과정과 그 의미의 발달」, 『國語學』 39(27-47), 국어학회, 2002.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서울: 태학사, 2004.
- 나진석, 『우리말의 때매김 연구』, 서울: 과학사, 1953[1971].
- 도재학, 「우연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71(259-304), 2014.
- 박성하, 「현대중국어 '要'의 양태기능과 문법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염죽균, 「중국어 '要'와 '會'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박재연,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2006.
- 이기갑, 「미정의 씨끝 '-으리'와 '-겠-'의 역사적 교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12(161-197), 연세대 한국어학당, 1987.
- 이남순,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1981b(이남순, 『時制·相·敍法』, 서울: 月印에 채수록, 1998).
- 이은수, 「현대 중국어 상 표지 연구: '了'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은수,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會'와 '要'의 비교 연구」, 『中國語文論叢』, 109(39-62), 중국어문연구회, 2022.
- 이병기, 「한국어 미래성 표현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병기, 「시상 형태 '-(으)리-'의 쟁점과 전망」, 『국어사연구』, 27(79-107), 2018.
- 임동훈, 「'-겠-'의 용법과 그 역사적 해석」, 『국어학』 37(115-147), 국어학회, 2001.
- 정혜선, 「국어 인식 양태 형식의 역사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 허 응, 「19세기 국어 때때김법 연구」, 『한글』 177(3-38), 한글학회, 1982a.
- 허 응, 「한국말 때때김법의 걸어온 발자취」. 『한글』, 178(3-52), 한글학회, 1982b.
- 郭昭軍·尹美子, 「助動詞“要”의 模態多義性及其製約因素」, 『漢語學習』 2(35-40), 2008.
- 盧卓群, 「助動詞“要”漢代起源說」, 『古漢語研究』 3(45-48), 1997.
- 太田辰夫, 蔣紹愚·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1987[2003].
- 彭利貞, 『現代漢語情態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 石毓智, 『漢語語法』, 商務印書館, 2010[2011].
- 石毓智·白解紅, 「將來時標記向認識情態功能的衍生」, 『外國語言文學』 2(73-78, 144), 2008.
- 王力, 『王力文集 第1卷(中國語法理論)』, 山東教育出版社, 1984.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80[1994].
- Comrie, B., *Aspect*(이철수·박덕유 옮김, 『동사 상의 이해』, 서울: 한신문화사), 1976[1998].
- Bybee, J., Perkins, R, Pagliuca, W., *The evolution of grammar :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박선자·김문기 옮김, 『문법의 진화-시제, 상, 양태』, 서울: 소통), 1994[2010].
- Li, C. N. & Thompson, S. A.,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박정구·박종한·백은희·오문의·최영하 옮김, 『표준중국어문법』, 파주: 한울 아카데미), 1981[2015].
- Lyons, J.,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Van der Auwera, J. & Plungian, V. A., *Modality's semantic map*, Linguistic Typology 2, 198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uture Grammatical Markers in Korean and Mandarin - Focusing on future gram ‘-겠-’ and ‘要’

Oh, Yoon Ji · Kim, Hye Kyung

This research aims to study how the notion ‘future’ is expressed in Mandarin and Korean from a trans-East Asian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check how the inevitable semantic relationship between the modality and future influences the grammatical markers related to this notion in separate languages. Second, clarify the grammaticalization path of ‘要’ and ‘-겠-’ and discuss if there and be an single universal path for grammaticalization of modality and future tense. Plus, verify the influence of the whole language system and diachronic change of other markers on the course of grammaticalization by studying the general typological difference between Mandarin and Korean.

There are various ways to express the notion of ‘future’ in various languages that essentially reflect the speaker's perception and judgment. Future can be expressed through a complete tense system, forming a clear paradigmatic relation with past and the present. Future can also be expressed through context-dependent interpretation or other modality markers. Scholars have come up with different views on the grammatical status and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elements that represent the future in each language. Grammarization is often defined as a process of language change by which content words lose their original meaning and become grammatical markers. The change from lexical and concrete contents to markers that solely serve grammatical functions is made through semantic bleaching and subjectification. The problem is that it is hard to define the grammaticalization path between ‘future’ and ‘modality’, for it is difficult to specify which of the two is more ‘semantically bleached’ or more ‘grammatical’ when the two notions are conceptually inseparable.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grammaticalization of the modality marker and the

future marker cannot be understood as an one-way process through comparison between ‘要’ and ‘-겠-’ which are the most used forms in expressing future respectively in Mandarin and Korean. Through this, we will show that the grammaticalization is in fact, gravely influenced by other components in the whole language system, and also by certain language’s typ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us, the path of grammaticalization might seem inconsistent at first glance.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sent a rudimentary idea on how to examine the languages from a trans-Asian perspective and from which, derive language general facts.

Key words : ‘要’, ‘-겠-’, future gram, tense marker, modality marker, grammaticalization

투 고 일 : 2023. 1. 10. / 심 사 일 : 2023. 1. 15. ~ 2023. 2. 15. / 게재확정일 : 2023. 2. 20.
